

# 순천전공노 “노관규 후보와 정책협약식 없었다”

### 전공노 순천시지부, 정책질의서 전달... “정치적 악용” 황당 노조 조합원 “시장 시절 공무원노조 탄압 사과가 우선”

전남 순천시공무원노조가 “무소속 노관규 후보와 정책협약식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오전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노관규 공무원노조와 10년만에 갈등 풀고 드디어 화합으로...’ 제하 등의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이하, 전공노 순천시지부)관계자는 “정책협약식은 없었다. 지방선거 때마다 모든 후보자에게) 그냥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을 뿐”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2차 경선에 통과했던 후보 4명과 무소속 후보 2명에게 같은 정책질의서를 전달했고, 내용은 5월말까지 세울(행정 전산망)에 띄워 놓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공무원노조, 노관규 순천시시장 후보에 정책질의서 전달식.

전공노 순천시지부 조합원들은 “(노관규 후보)순천시시장 재임시절 전국에서 가장 악랄하게 공무원노조를 탄압했으면서도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전공노 순천시지부를 또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해 먹으려는 속셈에 노가 차오른다”며 “화합을 말하기 전에 사과가 우선이다”고 일갈했다.

이러 노관규 후보자가 “10년 만에 시장 선거에 나선 저 때문에 시청 내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있는 줄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시청 공무원들에게 보낸 것을 두고도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2006년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순천시시장 재임 시절 공무원 7명을 파면 해임시켰다. 이어 3년이 지난 동안 행정심판 끝에 공무원노조가 승소해 전원 복직명령을 받았다. 그 당시 파면 해임 충격으로 누구는 부모를 잃었고 누구는 가정을 잃었으며, 또 누구는 인생을 송두리째 잃었다.

한편, 노관규 캠프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핸드폰 번호도 없이 언론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 기자들도 배포된 이미지 사진에 ‘정책질의서’라고 뚜렷하게 표기 되어 있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책임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순천=조순익 기자

# 고흥,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접수 마늘·양파 식재시기 9~10월 중 농가 배정

고흥군은 갈수록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법인)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부터 도입까지는 4~5개월이 소요된 만큼, 마늘, 양파 식재 시기인 오는 9~10월에 인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흥군이 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 중순부터 법무부 도입 신청 전인 6월 8일까지 신청기간으로, 참

여농가는 재배면적에 따라 근로자 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 배정 방식은 MOU체결국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결혼이민자 친척(4촌 이내) 초청, 국내체류 외국인 취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참여농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법무부로부터 참여농가 및 외국인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를 진행하여 9~10월중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고흥=최현민 기자

# 여수 ‘지적도면 정비사업’ 나선다

### 올해부터 5년 중기계획

여수시가 올해부터 5년 중기계획으로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도면은 1910년대 작성한 축척 1200분의 1의 ‘지적도’와 1920년대 작성한 6000분의 1 ‘임야도’로 나뉘는데, 경계가 벌어지거나 겹치는 등 불일치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는 불일치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도면

상 경계와 실제 이용 상태를 분석해 지적도면을 바르게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화양면 일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권역별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부상의 오류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조일상 기자

# 순천, 우리 쌀 활용 가공교육 다음달 2일까지 30명 모집

순천시는 우리 쌀 소비확대와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우리 쌀을 활용한 가공교육을 추진한다.

시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오는 6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 5주간 매주 수요일 4시간씩 총 20시간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우리 쌀과 농산물을 활용한 제과·제빵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참여자들은 한국라이스클레이협회 전문가의 지도 아래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몬마들렌, 슈, 찹쌀브라우니, 오븐백설기, 우유찰싹, 쿠키 등 다양한 제과·제빵 기술을 익히게 된다.

교육대상자는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희망자는 다음달 2일까지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보급해 쌀 소비확대로 농가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쌀 가공교육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또는 순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시 농식품유통과(061-749-86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보성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 관리방안 전문가 토론회

### 2023년 사업 완료 예정... 체계적 사후관리 등 방안 논의

보성군은 지난 19일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 현장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관리방안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전라남도, 보성군, 산림조합중앙회, 보성군산림조합, 산림 전문가 등 산림 행정, 기술, 경영 분야 전문가 13명이 함께 했다.

보성군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보성군산림조합에서 공

모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2.525ha 면적에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1년 기준 조림(362ha) 숲 가꾸기(1,683ha), 임도 신규 개설 및 구조개량(52.6km), 산림소득단지(투룸, 황철/100.3ha)가 조성됐다.

관련자들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사업 성과를 확인한 후 시행자인 보성군과 보성군산림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성군 선종환 산림조성계장은 “8년 전부터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산림경영 현대화와 임업소득 기반 구축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완벽한 사업 성과를 올리고 산림소득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림청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산림자원을 다양한 용도의 원료 활용할 수 있는 목재 산업화 기반이 되고 두릅과 황철 등 산림소득 작물을 가공, 판매,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지립형 복합시설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 ‘대한민국 명품 광양매실’ 본격 출하

### 홍쇼핑·온라인 매화장터 등 다양한 판촉 활동 전개

광양시는 지난 25일 광양동부농협 옥곡지점 선별장에서 2022년산 광양매실 첫 출하식을 갖고 광양매실 시장 출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출하식에는 정상범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임성재 농협 중앙회광양시지부장, 지역농협장 등 산지 유통 관계자들이 참여해 매실 수매와 선별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매실 생산농가를 격려했다.

올해 매실 생산량은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수준에 조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협을 통한 농가 수매일정은 청매실의 경우 6월 17일까지, 남고 매실은 6월 15일~7월 3일로 총 3,300톤을 수매할 예정이다.

광양지역은 기후가 온난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최적의 매실 재배조건



을 갖춘, 우리나라 최대의 매실 주산지이다. 광양매실은 다른 지역 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하며 색깔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광양매실의 명품 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실 과원 정지 전정인력 지원, 매실풍력전정기 지원, 직거래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홍쇼핑 판매 지원, 온라인 매화장터 운영, 장아찌 가공용 매실씨 분리기 보급, 소비자 홍보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광양=조순익 기자

# 구례 가뭄 피해 예방 농작물 현장기술 지원

구례군은 최근 지속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농작물 관리 현장기술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5월 구례군 강우량은 1mm로 전년 강우량 108.5mm와 평년 강우량 91mm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현재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수분 부족에 따라 감자, 고추, 마늘, 양파 등 생육

악화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

해충밀도 증가로 직접 피해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나타날 수 있다.

가뭄피해 예방 대책으로는 물대기가 가능한 곳은 가급적 적기 관수를 해야 하며 인근 하천 등의 잔여 용수를 활용할 수 있다.

식물의 경우 뿌리가 분포된 지면을 두껍게 복토하거나 볏짚,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수분증발을 최소화 하

여야 한다.

해충의 경우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로 인해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피해주를 제거하거나 적용 약제를 살포하여 확산을 막아야 한다.

농작물 파종은 가급적 비가 내린 후 실시하여야 농작물 생육에 좋으며 적기보다 늦게 파종할 경우 20~30% 정도 파종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구례=오광범 기자

Golden Rose Festival Season 2

제12회 곡성 세계가장미축제

2022. 5. 21. 토 ~ 6. 6. 월

곡성섬진강기차마을